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등영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제17995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2월 27일 (음력 1월 21일) 수요일

The Kwangju Ilbo

행정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낭첨!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 367-3000

F1·과기원법 자동폐기 서남권법은 '기사회생'

어제 국회 본회의 … 지역 정치권 비난 빗발

광주·전남지역 미래를 견인할 '3대 핵심법안' 가운데 F1 특별법(포뮬러 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광주 과기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17대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관련기사 3면〉

또, 전남 서남권 개발의 근거가 되는 서남권 특별법(신발전지역 투자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두 차례나 법안 명이 바뀌고 일부 내용이 수정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여·야는 광주과기원법, F1 특별법, 서남권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물밑 접촉을 가졌으나 서남권 특별법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서남권 특별법은 본회의 통과까지 두 차례나 법안 명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신발전지역 투자촉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바뀐데다 법안 내용도 대폭 수정되면서 당초 법안의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됐다.

또한, 전남 서남권 개발의 선도 사업인 '포뮬러 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위한 지원법'인 F1 특별법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맞게 됐다.

여기에 광주 첨단산업의 요람이 될 광주과기원법도 본회의 상정 마지막 단계인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학부 신설 등 차질을 빚게됐다.

특히, 광주과기원법은 여·야가 본회의 처리를 내부적으로 합의했으나 국회 법사위에서 통합민주당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해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전 과기원의 기능 약화를 우려, 광주 과기원의 학사 과정 설치를 골자로 하는 광주과기원법 통과에 적극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F1 특별법과 광주과기원법의 재추진을 위해서는 오는 6월 개원하는 제18대 국회에서 법안 재발의, 상정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다 한나라당의 절대 다수 의석 확보가 예상되고 있어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과기원법과 F1 특별법이 자동 폐기되는 운명에 처함에 따라 지역 의원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4월 총선의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뉴욕필 평양 공연 26일 북한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미국의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끝난 뒤 북한 여성 1명이 지휘자인 로린 마젤에게 꽃다발을 선사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연합뉴스

광주·전남 6명, 전북 3명 교체

민주당, 1차 공천 심사 현역의원 30% 물갈이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26일 호남지역 현역의원 가운데 30%를 4월 총선 1차 공천심사 단계에서 탈락시키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광주·전남 6명, 전북 3명의 현역의원들이 1차 공천 심사에서 탈락할 전망이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경철 공심위원은 이날 서울 당산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심위 3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호남 현역의원의 경우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서 30% 교체를 1차 단계에서 시행키로 했다"며 "그 외 지역도 30% 교체를 목표치로 공천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인지도, 의정 만족도, 재출마 지지도, 17대 총선 투표 성향, 정당 지지도 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토대로 현역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지수를 산출할 것"이라며 "점수에 따라 현역 의원을 A~D 등급으로 나눠 D등급에 해당하는 30%에 대해 공천을 배제하며 전북에서 3명, 광주·전남에서 6명이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위원은 "현역의원 30%가 (공천에서) 배제됐다고 해서 나머지 현역의원의 공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기준을 놓고 공천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공심위의 내부적 컨센서스"라며 "현역의원에 대해서 1차로 30% 과락을 적용하지만 향후 물갈이 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총리 인준 표결 29일로 연기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한승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하려 했으나, 통합민주당측이 오는 29일로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일단 표결이 무산됐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이날 밤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27~28 양일간 진행되는 장관 청문회의 결과를 보고 총리 내정자 인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치 프리즘

'공천 탈락 대비' 각 예비 후보들의 셈법

 # 서류심사 탈락 → 해당 지역구 무소속 출마 가능

 # 여론조사 탈락 → 지역구 바꿔 무소속 출마 가능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면 무소속 출마가 가능한가요" (답 : 가능)

"1차 심사에는 통과했으나 면접에서 탈락, 최종 공천을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나요" (답 : 가능)

"1차 심사 후 남은 4명의 후보가 합의에 의해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을 했는데 탈락한 3명의 후보는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나요" (답 : 서면 합의했다면 불가능)

"여론조사에서 탈락하고 다른 지역구로 출마할 수는 있나요" (답 : 가능)

최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주 물어오는 총선 예비후보들의 질문들이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천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공천에 탈락할 경우를 대비한 각 예비후보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있다.

1997년 대선 이후 만들어진 일명 '이인제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공직선거법 57조 2항은 "경선후보자(당내 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경선에 의해 탈락한 후보의 무소속 출마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도대체 '경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해석은 크게 달라진다. 전통적 의미의 경선이란 각 당이 경선후보를 등록 받고 특정장소에서 당원 투표 또는 비당원 투표(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거나 혹은 일정기간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의 공천은 대부분 각 당이 '전통적 경선 방식'을 사용 하지 않고 있다. 시간이 촉박하고 지구당 조직이 흐트러져 경선 실시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각 당은 공천심사위를 가동해 서류심사와 면접을 벌이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까지 선관위가 '경선'으로 간주하는 행위는 ▲투표에 의한 당원·대의원·일반인 경선 ▲당헌·당규에 의한 여론조사 ▲후보자 간 서면합의에 의한 여론조사 등 세 가지다. 이 경우 탈락자는 해당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탈락자가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비례대표로 진로를 바꿔 출마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문제는 민주당 등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후보자 수를 압축한 뒤 경선을 치를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여론조사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모바일 경선을 하도록 하는 등 경선의 경우 수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당에서는 경선이라고 주장하고, 공천 탈락자들은 경선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 규정된 경선의 방법을 쓸 경우 당연히 합법적 경선으로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애매한 경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그럴 경우 우선 당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래도 논란이 있으면 선관위에서 합법적 경선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후원회 광고'를 접수합니다
062) 220-0526, 227-8510
광주일보 광고마케팅국

후암각원 창학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세계로 힘차게 나아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국제광고상 7관왕 그랑 프리 수상 "2년 연속 아시아 최고"
제1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광고상' 동시수상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릴 적,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복통약이었고,
머리 아플 때는 두통약이고 해열제였습니다.
아플 때마다 사람으로 낫게 하는 엄마의 손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깃든 약손처럼,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비타민 A, C, E의 보급
- 폐암,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 각종 암 예방
- 심장병, 뇌졸중,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
- 피부노화 방지 및 피부미용
- 임산부, 수유부, 성장기 어린이, 노약자, 수험생의 보충
- 각종 감염증의 저항력 증강
- 항암, 피부병 등에 의한 백혈구 감소증 회복, 주근깨의 완화, 임신중절, 피임약 부작용
- 알코올중독자 및 과년기시 각종 정신적 장애 : 이에 적극적임.
수술시의 수혈보충
어린이 보급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yojpharm.co.kr
고객을 위한 전화(수신자 부담) 080-022-2200
광고심의필 923-1500